

노사상생이 지역발전 원동력

노사관계 대화가 생명

힘보단 협력... 글로벌 경쟁력 생긴다

독일 최대의 전자업체인 지멘스가 지난 2004년 캄프 린트포트·보폴트 등 2곳의 전자기 생산공장을 인건비가 싼 헝가리로 이전하려고 하자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상승 없는 근로조건 하향을 제시했다.

회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공장 해외이전을 백지화했고, 해당 공장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유지했다.

네덜란드는 80년대에 임금폭등과 복지팽창에만 급급한 노조의 요구와 과잉, 이에 따른 물가와 실업률 급상승으로 장기불황에 빠져 소위 '네덜란드병'을 경험한다.

이에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업이윤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고, 조합원 감축에 시달리던 노조도 결국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후 노조가 물가와 연동해 임금이

투쟁위주 대립구도 투자 가로막는 장애물 성장·분배 균형점 찾아 일자리 창출 나서야

인상되는 물가보상조항을 철폐하는 등 임금인상 억제에 동의하고, 기업이 보다 많은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네덜란드병'은 서서히 치유되기에 이르렀다.

올해는 1987년 노동계 대투쟁이 발발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도 어른이 됐다는 뜻에 다를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사관계는 아직도 대립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87년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노사관계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유치의 걸림돌이자, 국가경제·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노동계 관계자는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은 협조적 관계인 듯 하지만, 생산결과와 분배를 둘러싸고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전통적인 투쟁위주의 활동에서 대화·협상·참여·연대를 통해 개혁을 추동하는 합법적인 운동으로 노조가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글로벌화는 결국 기업 구성원의 몫이다. 우선 사용자가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 약점이 있는 사용자들이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또 체계적인 발전로드맵을 만들어

내야 한다. 노조를 적대적인 상대로 대할 게 아니라 상생의 한 파트너로 대화와 타협의 채널을 늘 열어놔야 한다.

노조 역시 마찬가지다. 사용자의 두려움과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힘의 행사를 절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내부 시스템과 관행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C대 교수는 "대화과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주의의 정당성이 확보되면 법과 원칙의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엄정한 조정자,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데 앞장서야 노사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수상자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영 애로에 대한 건의와 함께 업체간 정보교류 모색 등을 논의했다.

광주일보사·중기청 선정 '이달의 중소기업인상' 수상자 간담회

"우수제품 공공기관서 우선 구매해달라"

중소기업 우수제품(GQ, 인증제품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조항이 필요하며, 인력난 해소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수상자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수상자들은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있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을 받은 역대 수상자들로, 이날 12명이 참석했다.

형기우 (주)동양화학 대표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시제품을 제작할 경우 비용부

족이나 기술적인 애로가 많은 중소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 중소기업들이 각종 인증을 획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수 (주)광전엔지니어링 대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업체를 심사할 때 담보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보다 기업의 미래가치, 잠재적인 가능성을 고려했으면 한다"면서 위험을 감수한 평가시스템을 제안했다.

조예욱 (주)한국에텍 대표는 "광주시의 경우 벤처기업에게 정책자금 등에 대한 혜택을 주는 데 중기청이 인증한 기술혁신형기업(이노비즈기업)은 이같은 혜택이 전혀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

했다. 홍보선 (주)금산전자 전무는 "해외 산업연수생들이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계속 근무의사를 밝히면 채용이 가능하나, 귀국 후 다시 입국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불편하다"며 인력문제에 대한 중기청의 지원을 호소했고, 아울러 비철금속 등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같은 건의에 대해 박춘근 중기청장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청은 비철금속 선물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이 공공기관에 더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중기청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스포티지' 대한지적공사 업무용 차량으로

기아차 광주공장의 주력차종인 스포티지가 대한지적공사 직원들의 업무용 차량으로 선택돼 전국을 누비게 됐다.

기아차가 지난달 중순부터 30일까지 대한지적공사에 납품한 스포티지는 모두 951대에 달한다.

스포티지는 대한지적공사 직원들의 내부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납품차량으로 선정됐으며, 납품차량 중에는 산악지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4륜 구동 모델이 49대 포함돼 있다.

한편 스포티지는 2004년 8월 출시 이래 2005년 5만7천31대, 2006년 3만5천867대 등 소형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부문 2년 연속 판매 1위를 달성했다. 올 들어서도 4월까지 총 1만2022대가 판매돼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혁신형 中企 345개사

지난해 보다 205개 늘어... 전국의 3.7%

광주·전남지역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이노비즈기업은 345개로, 지난해 동기(140개)에 비해 146.4%(205개) 증가해 전국 평균 130.3%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전국 이노비즈기업(9천293개)의 3.7%에 불과, 아직 기술혁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동안 분야별 증가현황은 제조업 113→269개, 바이오 8→31개, 소프트웨어 9→18개, 환경 6→13개, 건설 2→5개, 비제조업 3→8개, 전문디자인 0→1개였다.

매출액도 크게 늘어 10억원 미만 35→66개,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67→173개,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1→49개,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9→28개, 200억원 이상 9→

29개로 나타났다. 중업원수도 급증해 5인 이하 5→17개, 6~10인 15→38개, 11~50인 98→235개, 51~100인 16→37개, 100인 이상 6→18개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육성지원과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욕구가 맞물려 이노비즈기업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각종 신용보증 지원과 함께 이전기술개발사업 등 각종 중기청 지원시책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지역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유기농축산물 맘껏 드세요" 학사농장 '62day 한미당 잔치'

유기농축산물 생산·유통업체인 학사농장(대표 강용)이 2일 상무지구 유기농타운에서 '62day(유기농산물데이) 한미당 잔치'를 갖는다.

이번 잔치는 '1년에 하루만이라

도 유기농 축산물을 배달하게 먹어봅시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유기농가 농민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기농 축산물 재배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유기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구며진다. '62day(유기데이)'는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모여 유기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서민 주택자금 대출 지원에 최선"

정진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장



"무엇보다도 영세 서민들의 주택자금 대출지원에 지사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주택금융공사 정진(60) 광주지사장은 주택금융공사의 주 업무가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인 만큼 주택자금 대출 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정 지사장은 또 주택대출의 일종으로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기저리 고정금리인 '보금

자리 룬'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7월부터 시행되는 역모기지론이 지역 실수요자에 맞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출신으로 광주교과와 조선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대 등 교육계에 진출한 뒤 재정경제부를 거쳐 2004년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경영기획팀장을 역임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농협 'e-조은통장' 판매 年 3.5%까지 우대금리 적용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e-금융세대(10~30대)의 핵심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1일 인터넷 전용통장인 신상품 'e-조은통장' 판매에 들어갔다. 'e-조은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최고 연 3.5%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1인 1통장으로,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e-조은통장'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거처식예금과 정기적금 등 적립식 예금에 가입하면 고시금리에 추가로 연 0.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우대금리 적용대상 고객에게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im Su-hee's performance. Text includes: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김수희 오늘출연', '부킹천국 100%', '정통 성인나이트 만을 고집하는 광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